부모교육연구 제4권 1호
The Korea Parents Education Association
2007. 6. Vol.4 No.1, 87~108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Self-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f the 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최 외 선
대구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제 석 봉*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이 경 민
Dept.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Choi, Wae Sun
Dept. of Social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
Professor Je, Seok Bong
Major in Social Welfar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eungnam University
Lee, Kyung Min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ployed mothers' self-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Study subjects are 203 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attending 8 different kindergartens located within Daegu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6. The research instruments were a measure respectfully on self-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For analysis of data chosen were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s a follow-up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 교신저자 : 제석봉(E-mail: sbje@cu.ac.kr)

we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of the employed mothers reached 2.67 out of total 4.00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exhibited 2.77 out of 4.00. Second, the employed mothers'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wife's age, husband's age, wife's academic background, husband's academic background, husband'career, and family type. Then, the employed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wife's age, wife's academic background, husband's academic background, wife's career, husband's career, and family type. Third, it found that the employed mothers' self-regulation efficacy and self confidence were the factors predicting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employed mothers'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주요어(Key Words) : 유아기 자녀(infant), 취업모(employed mother),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모역할 만족도(parental role satisfaction)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30%를 차지했던 여성의 노동참여가 2000년에는 48.8%, 2002년에는 49.8%, 2005년에는 50.1%로 꾸준히 증대되었다(통계청 2000~2006).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에 63.7%를 보이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는 30~39세에 56.2%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40~49세에 64.5%로 다시 참여율이 높아져 M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3). 이같은 취업여성의 증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는데, 이를테면 대학교육을 받거나 훈련기술이 있는 여성의 증가,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의 증가, 성역할 평등에 대한 인식의 증가, 여성운동, 그리고 정부의 고용차별 금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맞벌이 형태의 가정을 원하고 있으며, 결혼과 일, 그리고 부모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과거의 전형적인 취업여성은 젊고 미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나이 든 기혼여성이 직업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들이 바깥일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가장 현저한 변화 중 하나는 갓난아이와 학령 전 아동이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독신, 만혼, 자발적 무자녀 가족과 같은 생활양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함이 보편화되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면서, 부모역할과 관련된 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주요요인이 되며 부모로서의 정서적 만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치러야할 경제적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의 어려움을 상쇄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Cleminshaw & Guidubaldi, 1989).

그러나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과 특히 아동기 초기의 안정되고 자극이 풍부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적절하게 키우도록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부모는 자신의 욕구와 동시에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모역할수행을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높은 자기효능감이 요구된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인간 힘의 중심요소로서 개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과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거나, 문제해결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곤란에 당면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빨리 포기하며, 실패나 방해를 겪고 나면 효능감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불충분한 성취는 적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능력에 대해 자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쉽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희생된다. 반면에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과제나 활동에 접근하는 데 있어 침착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성취 수준에 강한 결정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에 강하게 추진하며, 실패에 직면해서도 노력을 더 강화하고, 실패나 방해를 겪고 나서도 효능의식을 더 빨리 회복한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불충분한 노력 또는 부족한 지식과 기능에 돌리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를 제압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에 걸릴 소지를 낮춘다. 강한 자기효능감은 지속력을 갖게 하고,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하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적절한 강화가 없으면 수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이중석, 1996; Bandura, 1986).

최근 들어 급증하는 이혼으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유아의 정서불안에서 오는 정서, 행동문제는 유아기의 부모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질 뿐만 아니라 지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발달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로서,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자아개념은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결

정하는 요인이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며 가족 내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간의 사회적 관계는 성격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Belsky, 1984),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결과(이연주, 1984; 이정숙, 1990; 최자령, 1991; 허영숙, 1993)에서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은 어머니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영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 취업여성들은 다른 역할에서보다 부모역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고,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규현(2006)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2.8% 이상이 직장생활과 어머니역할 간에 갈등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행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취업모로 하여금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역할만족도와 그 영향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Cleminshaw와 Guidubaldi(1989)는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실제적으로 유아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과 내적 통제를 갖게 하며, 또래와 질적인 관계를 맺는데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곽은복(1991)도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만족할수록 유아도 또래와 어머니로부터 지각된 수용도가 높다고 하여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수용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Abernthy(1973)는 사회적 친교가 강한 어머니는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현온강, 1994, 재인용), Lamb(1982)은 어머니 역할만족이 어머니 자신의 자아성취와 함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며, 자녀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는 연구(고선주, 옥선화, 1994; 김명자, 1981; 김인지, 2005; 양미경, 1996; 이혜란, 1984; 현온강, 1994; 현온강, 조복희, 1994; Chilman, 1980; Goetting, 1986; Hoffman & Manis, 1979; Steffensmeir, 1982)가 대부분이었고, 부모역할 긴장에 관한 연구(김영희, 1992; 안선영, 1987; 옥경희, 1999; 이정숙, 1990; 전영자, 1992; 정현숙, 1997; 조은숙, 1999; 조희금, 1990; Bowen, 1982; Greenberger & O'Neil, 1990)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부모역할만족도의 관련변인들로서 사회관계망(도현심, 김지신, 1997; Abernethy, 1973; Belsky, 1984; Gold & Andres, 1978; Hanes & Dunn, 1978; Hock, 1978; Mccurdy, 1997), 양육태도(문혁준, 2001), 부모로서의 효능감(김종훈, 2006; 남재희, 2004; 노서연, 2005; 박현숙, 2003; 서혜영, 1998; 서혜영, 이숙현, 1999; 윤은미, 2004; 오미연, 2005)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 어린

관심을 많이 보임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역할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 만족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 데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배경변인에 따라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내 수성구에 소재하는 8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 중 맞벌이 가정 3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245부 중 기재가 미비하거나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응답한 20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아내 연령	35세 이하	118(58.2)	남편 연령	35세 이하	61(30.0)
	36~40세	75(36.9)		36~40세	99(48.8)
	41세 이상	10(4.9)		41세 이상	43(21.2)
아내 학력	중졸이하	22(11.3)	남편 학력	중졸이하	10(11.3)
	고졸	54(27.7)		고졸	40(19.7)
	전문대이상	119(61.0)		전문대이상	136(69.0)
아내 직업	자영업	21(12.6)	남편 직업	자영업	53(29.6)
	회사원	49(29.3)		회사원	73(40.8)
	전문직	63(37.7)		전문직	27(15.1)
	공무원	34(20.4)		공무원	26(14.5)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자기효능감 척도와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이며, 각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와 Maddux(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로 이동영(199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척도의 24문항을 배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 21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의 전체 변량 중 48.66%를 설명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은 8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의 전체 변량 중 24.6%를 설명하였고, 자신감(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은 8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의 전체 변량 중 17.7%를 설명하였으며, 특수과제 효능감(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은 5문항으로 자기효능감의 전체 변량 중 12.4%를 설명하였다. 채점체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876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 Cronbach α=.882, 자신감 Cronbach α=.824, 특수과제 효능감 Cronbach α=.755이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

요인명	문 항	역산문항
자기 조절 효능감 (8문항)	10.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1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2.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1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5.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8.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다. 19.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자신감 (8문항)	**1.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4.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5.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다.** **6.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7.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 * * * * *
특수과제 효능감 (5문항)	20.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21.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2.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3.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24.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2)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서연(2003)의 34문항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구성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34문항을 배리맥스 회전방식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 5요인(34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 전체 변량 중 55.90%를 설명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지지는 10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 전체 변량 중 28.77%를 설명하였고, 성취감은 7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 전체 변량 중 12.25%를 설명하였으며, 양육부담은 9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5.87%를 설명하였다. 부모됨은 5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 전체 변량 중 5.06%를 설명하였고, 안정감은 3문항으로 부모역할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3.95%를 설명하였다.

채점체계는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913이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지지 Cronbach α=.934, 성취감 Cronbach α=.822, 양육부담 Cronbach α=.789, 부모됨 Cronbach α=.780, 안정감 Cronbach α=.763이다. 부모역할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요인명	문 항	역산문항
남편의 지지 (10문항)	1. 나는 남편과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 남편과 아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편이어서 기쁘다. 6. 남편이 비교적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나는 이에 만족한다. 11.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만족한다. 14. 자녀양육에 대해 남편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편이어서 기쁘다. 15. 남편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므로 행복하다. 18. 나는 남편의 자녀양육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19. 남편은 아동발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21. 남편은 내가 부모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준다. 22. 나는 남편의 아이 학업지도 및 훈육에 대한 태도에 만족한다.	
성취감 (7문항)	3. 나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기쁘다. 9. 자녀는 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기쁘다. 17. 나는 아이들로부터 받은 애정과 사랑에 대해 만족한다. 25.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26. 나는 아이가 성장해감을 보게 될 때 뿌듯하다. 27. 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무엇을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 28. 나는 아이가 있으므로 사는 목적이 뚜렷해졌다.	
양육부담 (9문항)	7. 나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 만족한다. **10. 나는 가끔씩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12. 나는 아이가 매우 협조적이어서 대단히 만족스럽다. **16. 아이들은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척 짜증나게 한다.** **20. 아이들로 인한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 **23. 아이들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29. 나는 아이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나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30. 나는 가끔 집안일을 하는 도중 자녀에 의한 방해를 받는다.** **32. 나는 아이를 위해 내 생활의 계획을 포기해야 할 때 심리적인 허탈감이나 갈등이 느껴진다.**	 * * * * * * *
부모됨 (5문항)	4. 아이들은 나를 좋은 부모로 여기는 것 같다. 5. 아이와 함께 있으면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 8. 나는 내 자신의 자녀양육 방식에 만족한다. **24. 나는 아이들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다.** 31. 나는 부모로서 나의 가치와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
안정감 (3문항)	13. 나는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되어 만족한다. 33. 나는 아이가 생긴 후 결혼생활이 정착된 기분을 느꼈다. 34. 아이로 인해 부부간에 공통된 관심사가 늘어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역할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수준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수준

N=203

변인	하위 영역	M	SD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2.75	.30
	자신감	2.73	.34
	특수과제 효능감	2.42	.40
	전체	2.67	.25
부모역할만족도	남편의 지지	2.65	.55
	성취감	3.12	.40
	양육부담	2.70	.35
	부모됨	2.69	.43
	안정감	2.66	.34
	전체	2.77	.31

<표 4>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4점 만점에 2.67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M=2.7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M=2.73), 특수과제 효능감(M=2.42)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은 4점 만점에 2.77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취감(M=3.1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육부담(M=2.70), 부모됨(M=2.69), 안정감(M=2.66), 남편의 지지(M=2.65) 순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1)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에 따라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아내직업, 남편직업, 가족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은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남편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아내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내연령에서는 자신감(F=3.53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연령에서는 특수과제 효능감(F=4.10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35세 이하 집단이 41세 이상 집단보다 특수과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내학력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F=3.74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학력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F=3.587, p<.05)과 특수과제 효능감(F=3.90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특수과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직업에서는 자기효능감(F=3.091, p<.05)과 자기조절 효능감(F=5.5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는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에서는 자신감(t=-2.09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 집단이 핵가족보다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정 결과표

N=203

변인	구분	N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특수과제 효능감
			M(SD)	M(SD)	M(SD)	M(SD)
아내 연령	35세 이하	114	2.70(.25)	2.76(.33)	2.76(.30)	2.46(.44)
	36~40세	72	2.62(.24)	2.71(.24)	2.71(.39)	2.37(.35)
	41세 이상	10	2.61(.26)	2.85(.33)	2.47(.34)	2.42(.27)
t(F)			2.767	1.292	3.536*	.912
남편 연령	35세 이하	58	2.72(.27)	2.75(.37)	2.76(.31)	2.54(.47)a
	36~40세	92	2.66(.25)	2.74(.27)	2.74(.37)	2.39(.37)
	41세 이상	41	2.61(.20)	2.76(.26)	2.66(.31)	2.32(.32)b
t(F)			2.427	.108	1.059	4.104*
아내 학력	전문대졸이하	62	2.64(.24)	2.67(.28)	2.75(.39)	2.36(.37)
	대졸	87	2.67(.25)	2.77(.29)	2.71(.34)	2.47(.40)
	대학원 이상	30	2.69(.26)	2.82(.34)	2.73(.24)	2.46(.46)
t(F)			.491	3.742*	.212	1.595
남편 학력	전문대졸이하	45	2.61(.22)	2.67(.27)a	2.72(.34)	2.29(.35)a
	대졸	95	2.68(.25)	2.74(.28)	2.71(.37)	2.49(.41)b
	대학원이상	42	2.71(.27)	2.83(.35)b	2.76(.28)	2.44(.40)
t(F)			1.912	3.587*	.284	3.903*
아내 직업	자영업	21	2.63(.16)	2.67(.26)	2.74(.25)	2.35(.35)
	회사원	49	2.68(.26)	2.70(.31)	2.78(.32)	2.50(.38)
	전문직	61	2.71(.28)	2.80(.35)	2.77(.35)	2.50(.43)
	공무원	33	2.60(.25)	2.73(.22)	2.64(.40)	2.34(.35)
t(F)			1.289	1.462	1.246	1.774
남편 직업	자영업	52	2.66(.21)	2.71(.26)b	2.77(.34)	2.39(.36)
	회사원	72	2.65(.25)	2.70(.28)b	2.71(.32)	2.46(.41)
	전문직	27	2.82(.28)	2.96(.36)a	2.83(.37)	2.55(.47)
	공무원	24	2.63(.28)	2.75(.28)	2.61(.43)	2.34(.35)
t(F)			3.091*	5.511***	1.928	1.459
가족 형태	핵가족	149	2.65(.24)	2.74(.27)	2.70(.34)	2.41(.39)
	확대가족	47	2.73(.27)	2.76(.38)	2.82(.32)	2.48(.43)
t(F)			-1.760	-.285	-2.098*	-1.101

1)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2) a, b : 사후검증결과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2)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배경변인에 따라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아내직업, 남편직업, 가족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아내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아내직업, 남편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편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아내연령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F=2.983, p<.05)와 양육부담(F=5.96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5세 이하 집단이 36~40세 집단보다 양육부담이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학력에서는 부모 됨(F=3.58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학력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F=8.566, p<.001), 남편의 지지(F=11.386, p<.001), 성취감(F=3.480, p<.05), 부모 됨(F=11.39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과 대졸집단보다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많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집단이 대졸 집단보다 성취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졸 집단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집단보다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내직업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F=3.877, p<.01)와 부모 됨(F=5.176,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직업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F=11.070, p<.001)와 남편의 지지(F=14.444, p<.001), 부모됨(F=6.24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고 남편의 지지가 많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됨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형태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t=-2.311, p<.05)와 양육부담(t=-2.209, p<.05), 부모됨

(t=-2.66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 집단이 핵가족 집단보다 부모역할 만족도와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양육부담이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검정 결과표

N=203

변인	구분	N	부모역할 만족도전체	부모 역할 만족도 하위 영역				
				남편의 지지	성취감	양육부담	부모 됨	안정감
			M(SD)	M(SD)	M(SD)	M(SD)	M(SD)	M(SD)
아내 연령	35세 이하	115	2.81(.31)	2.73(.55)	3.13(.40)	2.78(.34)a	2.72(.47)	2.68(.37)
	36~40세	72	2.70(.30)	2.54(.56)	3.10(.40)	2.60(.36)b	2.65(.37)	2.62(.29)
	41세 이상	10	2.65(.17)	2.56(.37)	3.17(.24)	2.61(.28)	2.52(.25)	2.76(.22)
t(F)			2.983*	2.666	.205	5.966**	1.498	1.316
남편 연령	35세 이하	60	2.77(.32)	2.61(.63)	3.16(.40)	2.77(.36)	2.70(.51)	2.66(.37)
	36~40세	95	2.78(.30)	2.67(.52)	3.12(.40)	2.66(.34)	2.71(.41)	2.63(.32)
	41세 이상	41	2.74(.31)	2.69(.50)	3.06(.38)	2.72(.37)	2.62(.33)	2.75(.32)
t(F)			.332	.840	1.597	.661	1.789	.141
아내 학력	전문대졸이하	75	2.74(.29)	2.64(.51)	3.14(.40)	2.68(.30)	2.59(.46)a	2.66(.30)
	대졸	88	2.76(.34)	2.58(.61)	3.08(.41)	2.74(.41)	2.72(.41)	2.70(.38)
	대학원 이상	34	2.83(.25)	2.87(.43)	3.18(.35)	2.66(.31)	2.81(.36)b	2.58(.28)
t(F)			.966	3.396	.888	.962	3.588*	1.404
남편 학력	전문대졸이하	49	2.65(.29)b	2.41(.57)a	3.12(.45)	2.65(.34)	2.47(.49)a	2.60(.28)
	대졸	101	2.75(.28)b	2.64(.52)b	3.06(.38)a	2.69(.34)	2.71(.37)b	2.66(.36)
	대학원 이상	48	2.92(.32)a	2.92(.46)c	3.24(.35)b	2.79(.40)	2.86(.39)b	2.74(.34)
t(F)			8.566***	11.386***	3.480*	2.018	11.397***	2.119
아내 직업	자영업	21	2.67(.21)	2.62(.37)	2.94(.30)	2.72(.34)	2.56(.36)a	2.60(.20)
	회사원	45	2.73(.29)	2.57(.52)	3.13(.36)	2.72(.32)	2.64(.37)a	2.71(.35)
	전문직	56	2.90(.33)	2.83(.61)	3.14(.38)	2.76(.42)	2.88(.43)b	2.70(.35)
	공무원	34	2.76(.27)	2.63(.47)	3.18(.40)	2.67(.32)	2.67(.37)	2.60(.26)
t(F)			3.877**	2.414	1.717	.463	5.176**	1.233
남편 직업	자영업	49	2.76(.26)a	2.63(.44)a	3.12(.40)	2.69(.32)	2.69(.32)	2.67(.37)
	회사원	64	2.66(.28)a	2.43(.57)a	3.07(.37)	2.64(.35)	2.64(.35)	2.66(.32)
	전문직	27	3.03(.34)b	3.15(.44)b	3.26(.41)	2.84(.43)	2.84(.43)	2.69(.39)
	공무원	23	2.86(.27)ab	2.88(.45)ab	3.14(.40)	2.72(.30)	2.72(.30)	2.65(.31)
t(F)			11.070***	14.444***	1.444	2.093	6.247***	.077
가족 형태	핵가족	152	2.74(.31)	2.63(.56)	3.10(.39)	2.67(.35)	2.64(.43)	2.65(.35)
	확대가족	47	2.86(.29)	2.73(.52)	3.20(.42)	2.81(.34)	2.84(.39)	2.72(.28)
	t(F)		-2.311*	-1.069	-1.493	-2.209*	-2.662**	-1.256

1)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로 처리하여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p<.05 **p<.01 ***p<.001
2) a, b : 사후검증결과로 문자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3.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모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 속하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특수과제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에 속하는 남편의 지지, 성취감, 양육부담, 부모됨, 안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자기효능감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7), r=.399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는 <표 8>과 같다.

<표 7>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죽음불안의 상관관계 분석

변 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특수과제 효능감	자기효능감 (전체)	남편의 지지	성취감	양육 부담	부모됨	안정감	부모역할 만족도 (전체)
자기조절 효능감	·	·	·	·	·	·	·	·	·	·
자신감	.422**	·	·	·	·	·	·	·	·	·
특수과제 효능감	.414**	.390**	·	·	·	·	·	·	·	·
자기효능감(전체)	.813**	.772**	.737**	·	·	·	·	·	·	·
남편의 지지	.235**	.251**	.122	.225**	·	·	·	·	·	·
성취감	.271**	.212**	.109	.246**	.274**	·	·	·	·	·
양육부담	.365**	.290**	.136*	.329**	.379**	.609**	·	·	·	·
부모됨	.358**	.293**	.268**	.344**	.498**	.367**	.528**	·	·	·
안정감	.259**	.232**	.085	.220**	.452**	.384**	.408**	.373**	·	·
부모역할만족도(전체)	.399**	.350**	.156*	.348**	.799**	.655**	.769**	.721**	.612**	·

*$p<.05$ **$p<.01$

<표 8>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	β	R^2	F
남편의 지지	자기조절 효능감	.342	.136	.202*	.058	5.149**
성취감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287 .193	.100 .089	.225** .164*	.075	6.509***
양육부담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314 .229	.089 .081	.264*** .206**	.126	10.870***
부모됨	자기조절 효능감	.349	.097	.271***	.116	9.966***
안정감	자기조절 효능감	.291	.084	.268***	.077	6.796***
부모역할만족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328 .199	.075 .066	.338*** .223**	.171	13.901***

*$p<.05$ **$p<.01$ ***$p<.001$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β=.338, p<.001)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β=.223, p<.01)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전체 부모역할만족도의 17.1%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남편의 지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β=.202, p<.05)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남편의 지지의 5.8%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많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성취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β=.225, p<.01)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β=.164, p<.05)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성취감의 7.5%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성취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양육부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조절 효능감(β=.264, p<.001)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β=.206, p<.01)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양육부담의 12.6%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부모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β=.271, p<.001)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의 11.6%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이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안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β=.268, p<.001)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안정감의 7.7%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정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가진 취업모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부모역할수행을 위한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 203명이며,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이며,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 회귀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4점 만점에 2.67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신감, 특수과제 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은 4점 만점에 2.77점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취감(3.1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육부담, 부모됨, 안정감, 남편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20명을 대상으로 한 노서연의 연구결과(2003)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4점 만점에 3.3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취업모의 직업역할과 부모역할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배우자의 지지는 2.6점, 양육부담은 2.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은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남편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아내연령과 아내학력에서는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편연령에서 35세 이하 집단이 41세 이상 집단보다 특수과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남편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특수과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직업에서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고, 확대가족 집단이 핵가족보다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아내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아내직업, 남편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내연령에서 35세 이하 집단이 36~40세 집단보다 양육부담이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수행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강희경, 1994; 양연숙, 1997; 조은숙, 1999; Goetting, 1986)와는 상반된다. 이 같은 상반된 결과는 보육시설의 증가와 보육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국가의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임연신(2002)과 현온강, 조복희(1994)의 연구

에서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연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력에서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학력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가 많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집단이 대졸 집단보다 성취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졸 집단과 대학원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보다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곽은복, 1990; 김향은, 정옥분, 1999; 문혁준, 2001; 임연신, 2002; Cleminshaw & Guidubaldi, 198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됨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강희경, 1994; 양연숙, 1997; 현온강, 1994)도 있다.

아내직업에서,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부모 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전문직 취업여성이 전문직 취업여성보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조은숙, 1999)가 뒷받침을 해준다. 남편직업에서 전문직 집단이 자영업과 회사원 집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고 남편의 지지가 많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됨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확대가족 집단이 핵가족 집단보다 부모역할 만족도와 부모됨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양육부담이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현온강의 연구결과(1994)와 상반된다. 그러나 가족원간의 역할 분담과 남편의 지지도가 높은 경우 부모 역할 부담감이 낮게 나타난 이규현의 연구결과(2006)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수록 부모 역할은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곽정인의 연구결과(1999), 그리고 맞벌이가족에 있어서 취업여성들이 자녀의 탁아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고, 배우자의 지지가 있으며, 자신의 일에 만족할 때,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Hoffman, 1988; Olson, Frieze, & Detlefson, 1990)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셋째,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 부모됨, 안정감이 높고,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높고 양육부담은 적어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은 아내연령, 남편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남편직업, 가족형태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아내연령, 아내학력, 남편학력, 아내직업, 남편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취업모의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부모역할만족도를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한정된 적은 수의 대상에서 얻은 결과이므로 확대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및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업모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역할만족도를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밝힌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희경(199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 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0대 출산모와 고령출산모의 비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선주, 옥선화(1994). 부모기 전이 이후의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 양육분담.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6.

곽정인(199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망과 부모역할 만족도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은복(199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지각된 자기능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81).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1.

김영희(1992). 맞벌이부부 가족에 있어서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긴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71-284.

김인지(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 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훈(2006).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남재희(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서연(2003). 어머니 부모역할 만족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문혁준(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7.

박현숙(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혜영,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안선영(198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양연숙(1997). 일하는 어머니의 취업특성에 따른 부모역할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5(3),** 139-150.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현(2006). 여성공무원의 자녀보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31-46.

이정숙(1990). 기혼여교사의 가정생활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중석(1996). **사랑의 심리학.** 청주: 협신사.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신(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2-161.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조은숙(1999).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73-192.

조희금(1990).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7.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0-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03). 경제활동인구조사.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온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온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Abernethy, V. D.(1973). Social network and response to the maternal role.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 86-92.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Bowen, G. L.(1982). Social network and the maternal role satisfaction of formerly-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5*, 77-85.

Chilman, C. S.(1980).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29(3)*, 339-345.

Cleminshaw, H. K., & Guidubaldi, J.(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 J. 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pp.257-277). San Diego: Academic Hall.

Goetting, Ann(1986). Parental satisfaction :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83-109.

Gold, D., & Andres, D.(1978).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ten-year-old children with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elopment, 49(1)*, 75-84.

Greenberger, E., & O'Neil, O.(1993). Spouse, parent, Worker :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81-197.

Hanes, M. L., & Dunn, S. K.(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In J. H. Stevens, Jr. & M. Matthew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pp.51-67). Washington, D. 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Hock, E.(1978).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Perceptions of their careers, their infants' needs, and satisfaction with mo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37-43.

Hoffman, L. W., & Manis, J. D.(1978). Influences of children on marital inter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s. In R. M., & G. B.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Hoffman, L.(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Lamb, M. E.(198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A view. In M. E. Lamb(Eds.), *Nontradit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45-69). Hilsdale. NJ: Eelbaum.

Mccurdy, K.(1997).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 transactional analysis of parenting in disadvantaged families(mothers, home visi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Olson, E., Friene, H., & Detlefson, G.(1990). Having it all? Combing work & family in a male & a female profession. *Sex roles A Journal of Reaearch, 23*, 515-533.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66*, 987-994.

Steffensmeir, R.(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